

南北赤十字會談을 지켜본 所感

洪 英 <赤十字看護學校校長>
<본 회 이 사>

지난 8月30日과 9月13日 第1·2次 南北赤十字會談이 平壤과 서울에서 각각 開催되었다. 解放과 더불어 外勢에 의하여 國土가 南北으로 兩斷된 이래 27年이란 긴 세월을 서로 自由와 共産이라는 相反되는 이념과 체제속에서 6·25動亂 같은 처참한 민족비극까지 치루며 대치해 온 南과 北이 世界의 解氷무드와 더불어 첫 접촉을 本格的으로 시도한 것이다.

나는 이번 서울에서 열린 第2次 本會談場에 赤十字側參觀人의 한 사람으로 초대되어 歴史的인 赤十字會談 光景을 지켜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赤十字人의 한사람으로 또한 國民의 한 사람으로 이 會談進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겠으나 옆에서 직접 느낀 인상과 소감과, 그리고 南北을 가르막은 「鐵의 帳幕」을 넘어 우리 대표단이 평양을 다녀오고 北쪽 대표들이 서울을 다녀가는 奇蹟 같은 그간의 사실과 경과를 이미 보도를 통하여 아는 일이지한 편집자의 청에 따라 소감을 적어 보고저 한다.

平壤이나 서울에서 열렸던 第1·2次 南北赤十字會談은 모두 앞으로의 南北接觸의 序幕을 여는 「開幕祝祭」같은 行事과 하겠다. 사실 평양에서도 서울에서도 정식으로 會談을 가진 것은 두

· 세시간 뿐이었고 나머지 日程(각각 4泊5日)들은 觀光과 宴會等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南北접촉이 비록 公式會談時間이 짧았고 그 내용이 형식적인 의례사항에 대한 합의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會談의 意義나 成果를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음을 누구나 같이 共感할 줄 믿는다. 그것은 첫째로 會談場所가 달나라에 가기도 더 어렵던 평양과 서울이었던 사실과 둘째로 會談 상대가 다같은 배달의 뿔줄을 이은 韓民族이요 동포이면서도 세계 어느나라 어떤 政權의 뭉치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만나기 어려운 北韓의 대표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會談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다같이 念願해 다지않는 南北統一과 民族團合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 그 까닭이 있다 하겠다.

다 아시다시피 南北赤十字會談은 南北韓의 離散家族들이 그동안 막혔던 生死安否의 소식을 서로 전하고 가능하면 自由意思에 의한 상봉과 再結合을 실현하도록 하려는 人道的 目的아래 昨年 8月12日 大韓赤十字社 前總裁 崔斗善博士님의 제의에 의하여 1年間的 예비접촉끝에 本會談이 열리게 된 人道的 會談인줄 안다.

그러므로 이 會談의 직접목적은 南北韓의 離散家族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있고 그 운영역시

赤十字의 人道的 原則과 방법에 의하여 합의된 목적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하다. 우리들이 南北赤十字會談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그러하고 또한 南北赤十字會談 代表들이 평양과 서울을 가고 온적에 열렬한 환송과 환영의 反應을 보여준 것도 그런 뜻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南北赤十字의 접촉은 公式會談에서 얻은 成果나 意義보다 훨씬 복잡적이고 간접적인 의의와 성과가 컸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위에서도 적었듯이 過去 27년동안 서로 正反對된 兩極體制를 구축하고 세계에서 가장 예민하고 緊張된 대치상태를 이룩해온 우리 大韓民國과 北韓의 代表들이 평양에서 서울에서 적어도 표면으로는 더할 수 없는 貴賓대접을 받아가며 祝祭무드를 차아졌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往復日程을 통하여 비록 단편적이고 피상적이거나 서로 상대방의 사회체제와 생활실정을 직접 견문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 더욱 우리측에서는 自由社會의 言論自由와 매스컴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여 北韓의 實情을 短片的 斷面으로나마 可能限 紹介하였고, 1, 2次 會談의 實況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온 國民이 北韓의 여러모습과 北쪽 赤十字의 企圖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예기치 못했던 부산들이요 소극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슬아슬했고 多幸스럽고 믿음직스러웠던 일은 9월 1日 아침 서울「조선호텔」에서 열렸던 第2次 南北赤十字會談과 그뒤에 일어난 言論 및 市民의 銳意注視했던 表情이라 하겠다.

그날 나는 會談場 남쪽뒤편 가운데 앉아 會談 進行 狀況을 참관하였지만 南北赤十字社의 首席 代表들의 연설에 뒤이어 있었던 南·北을 대표한 사람들의 祝辭는 잔으로 너무나 對照적이었다. 우리측의 축하연설 내용이 그렇게 간곡하고

뜨거운 동포애속에서 離散家族찾기의 追求는 순수하고 의젓한데 반해 저쪽사람들의 소위 축하라는 것이 그렇게도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때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그 實況이 테레비와 라디오로 全國에 傳계된다고 알았을 때 누구나 그랬지만 나는 內心으로 매우 不安하고 걱정스러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대표단이 평양에 갔을때 新聞과 放送기자들이 보내온 北韓의 이모저모가 글로 사진으로 소개될때 일부 시민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상상해온 北韓보다 적어도 物理的 環境은 건설돼 있다고 느꼈고 또 南北접촉을 통한 저들의 태도와 호소에도 어느정도의 호기심과 기대를 가졌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번 저들이 서울회담에서 행한 演出에는 良識과 知性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本격을 느꼈고 세삼스럽게 共產主義의 正體와 그들의 南北赤十字會談을 통해 기도하는 底意에 대한 경계와 인내로서 결핵의 진실한 자세로서 무지한 동생을 둔 형의 입장으로서 임해야 겠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말할 것도 없이 南北으로 분단된 祖國은 統一되어야 하고 갈라진 民族은 다시 團結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의 至上目標과 熱願이며 課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27년동안 南北으로 對峙하여 相反된 體制를 구축해 놓고 적대관계아래 있는 冷殿한 현실속에서 살아왔다. 냉혹한 兩極의 대결이 이제 主·客觀의 여러가지 理由로 해서 서서히 풀리려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빙은 한달이고 두달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모두가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회를 상대로 오랫동안의 敵對關係를 改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忍耐와 誠實으로서 서로의 長·短點과 虛·實을 깊이 理解하고 파

「10. 17 특별선언」에 대한 성명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거센물결이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를 조성하고있는 냉엄한 현실과 남북대화를 통해 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해야할 역사적인 대명제앞에 과감하게 단행된 「10. 17특별선언」은 전국민이 일치단결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일대혁신적인 조치임을 확신하고 이를 지지하는 바이다.

현단계에서 불가피했던 비상조치가 민족의 영원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민족의 대등단결과 민족의 확고한 주체의식밑에 무질서와 비능률적인 소지를 배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체제개혁과 단결, 책임, 의무, 사명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하루속히 이땅위에 토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1972년 10월 21일

대한간호협회장 전 산 초

악하는 동시에 우리가 가진 모든 潛在力과 장점을 살리고 活用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국민총화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은 공명공감 하는 바 일줄 안다. 「국민총화」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온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는 애국심과 자주협동의 정신으로 각자의 직장과 분야에서 맡은바 임무의 최선을 다 하는에서 비롯되고 원수된다고 본다. 이러한 운동은 언제나 지도층에서 앞장에 서서 실현으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총화를 위하여서는 사회의 고질과 같이 되어 있는 부정과 부패, 사치와 허영, 불신과 시기, 질투, 허위와 나태등 퇴폐정신과 타락풍조를 물리치고 청신하고 정직하고 심실하고 근면한 생활자세를 가다듬어 실천에 옮겨야 하겠다.

아무렇게 올려싼 부록크집. 무질서하게 널려진 빨래, 빗트러진 간판 깨어진 유리창, 귀엽기만한 코흘린 어린이, 개구장이 바지 무릎의 덧부쳐진 토끼 고양이영광 모양의 쉼, 이 모든 것들을 저쪽 기자가 사진을 찍고 그들의 유치한 평가 수작이 두렵기만 하다.

끝으로 우리의 분수에 맞지 않는 향락과 소비성 풍조에 빠져 있는 일부층의 반성과 자숙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다.

다음 3차회담이 10월 24일 평양에서 4차회담이 11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 다함께 本會談의 모든 문제들이 民主主義的原則과 自由로운 原則에서 赤十字의 숭고한 人道主義的精神을 철저히 具現해 주시옵기를 하나님께 간절이 기도를 드려야 하겠다.

×

×

×